자동차 휠 & 타이어 디테일링과 실내외 광택 방법

세차를 샤워라고 표현한다면, 디테일링은 '전신 바디 케어' 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 디테일링이란 내 차의 외관과 디테일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세차 후 산화 방지 작업, 광택 작업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자동차 내 외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 자동차 디테일링에 대해 설명했다.

1. 휠, 타이어 디테일링

최근 차량들은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 향상을 강조하다 보니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분진 또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휠은 타이어 다음으로 도로면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발생한 고열로 인해 휠에 들러붙은 오염물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척이 아닌 휠 클리너를 사용해야 깨끗하게 휠을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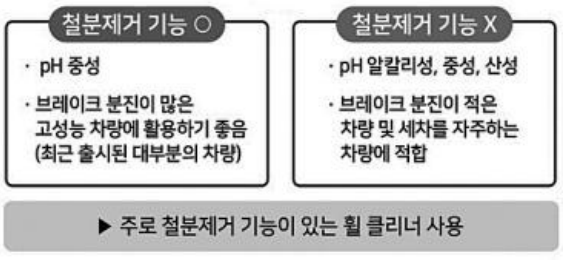
휠 디테일링을 할 때에는 절대 주행을 막 마친 직후 시작하시면 안 된다. 휠과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직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차가운 물을 뿌린다면 디스크에 변형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휠이 충분히 식은 뒤에 디테일링을 시작해 주셔야 한다.

▶ 휠 클리너의 종류

휠 클리너는 크게 철분 제거 기능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철분 제거 기능이 있는 휠 클리너의 pH는 중성이다.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나오는 차량의 휠 디테일링에 특히 효과적이다.

철분 제거 기능이 없는 휠 클리너는 알칼리성, 중성 그리고 산성 휠 클리너로 나눌 수 있다. 세정력은 산성>알칼리성>중성 순서이지만 안전성은 중성>알칼리성>산성 순이다.



< 휠 클리너의 종류 >

▶ 어떤 휠 클리너를 선택해야 할까?

보통은 철분제거 기능이 있는 휠 클리너를 쓰면 되지만, 휠이 특수 재질인 경우 pH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알로이 휠(좌측)과 크롬 휠

- 알로이 휠 (알루미늄 합금 휠)

대부분의 휠 클리너를 사용할 수 있으니, 휠의 오염 상태에 따라 적절한 pH를 선택하면 된다.

- 크롬 휠이나 코팅이 안 된 폴리쉬 휠

요즘은 개성을 위해 크롬 도금된 휠을 장착한 사라들도 많다. pH가 산성인 휠 클리너는 휠에 얼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중성이나 알칼리성 휠 클리너를 선택하면 된다.

휠 디테일링을 마친 뒤에는 타이어까지 신경 써주면 좋다.

타이어 갈변 현상이 발견될 경우는 굳이 갈변 제거용 케미컬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휠에 뿌렸던 알칼리성 휠 클리너를 사용해도 된다. 동일하게 타이에 분사해 주고 타이어용 브러시나 디테일링 브러시로 문질러주면 갈변이 제거된다.

이후 광까지 살려주려면 타이어 옆면에 광택제를 발라주면 되는데 스펀지를 활용하여 타이어 광택제를 닦듯이 발라주, 휠에 묻은 부분들은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끝!

2. 디테일링의 완성, 실내외 광택

새 차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광택을 통해 새 차 느낌을 낼 수 있다.

< 외부 광택-왁스의 종류 >

▶ 외부 광택

자동차 외관 광택을 위해 사용하는 왁스는 제형에 따라 크게 액체 왁스와 고체 왁스로 나눈다.

액체 왁스는 발수 코팅 기능이 있어, 차량 바디뿐만 아니라 유리, 휠, 플라스틱, 실내 대시보드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도 뿌리고 닦으면 끝이기 때문에, 세차 시 마다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고체 왁스는 스펀지에 적당량을 덜어 둥글게 움직여 균일하게 발라준 뒤, 왁스가 굳을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부드러운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 다만, 잘 펴서 바르지 않으면 얼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 내부 광택제의 종류 >

▶ 내부 광택

대시보드나 도어 안쪽, 시트 등 내부까지도 관리를 하면 더 좋다. 내부 세척을 마친 후, 실내 광택제 제품을 바르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면 끝.

자동차 내부는 플라스틱, 인조가죽, 천연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는 각 소재별로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제품은 안정성은 높이고, 여러 재질의 광택을 더욱 유지시켜주는 올인원 제품 하나만으로도 보다 쉽게 내부 디테일링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연 가죽이나 벨벳 재질의 내장이 되어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먼저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관은 자동세차, 실내는 물티슈로 닦고 끝냈다면, 이제는 자동차 디테일링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과 탑승자의 건강까지 함께 챙겨 보면 어떨까?

<사진= https://1boon.kakao.com>